

# 선택형 수능 도입… 대입전형 더 복잡해졌다

2014학년도 대입 대비 전략

서울 주요대학 수능이 절대적… 광주·전남은 내신 중요

수시 모집 7997명 확대… 대학별 수능 반영비율 따져야

2014학년도 대학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의 도입이다. 기존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바뀌고,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혼용 수준의 B형으로 구분되면서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이나 수능 최저 학력기준 등 전형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전형 요소별 장·단점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최근 광주·전남은 대입전형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서울 대상학원의 입시전문가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

소장의 도움으로 ‘2014학년도 대입 대비 전략’을 살펴본다.

◇수시 8000명 더 뽑는다=내년도 대입 총 정원은 37만9514명으로, 올해보다 1556명(2.2%)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66.2%인 25만1220명을 정시모집에서 33.8%인 12만8294명을 선별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1.8%포인트(7997명) 커졌다. 수시에서 83%를 모집하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 주요대학 중 70% 이상을 수시에서 뽑는 대학이 많아졌다. 대학마다 수능을 대비한 수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택형 수능을 도입했지만, 서울

소재 종상위권 대학들은 인문계는 국어B·수학·영어B를, 자연계는 수학B·국어A·영어B를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도 늘었다. 올해에는 125개 대학에서 4만7606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에는 126개 대학에서 4만9188명을 모집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반영 대학도 올해 7개 대학(127명)에서 내년 27개 대학(665명)으로 늘어나고, 논술고사도 2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대학으로 가는 길=크게 6가지로 구별해 살펴본다.

먼저,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100% 반영 대학이 인문 88개·자연 89개 대학이고, 서울 주요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우선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네번째는 적성검사로 대학가는 방법이다.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에서

여기에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커트라인(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곳이 크게 늘어난 것도 수능을 중시해야 할 까닭이다.

두번째는 교과 관리를 잘해 학생부로 대학가는 방법이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는 많은 대학이 학생부성적을 비중있게 반영한다. 특히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모든 대학은 이 전형방법을 택하고 있다.

세번째는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고사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다. 서울대를 비롯해 29개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본다.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전형에서는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 요소다.

네번째는 적성검사로 대학가는 방법이다.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적성검사는 각 관식 시험으로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 지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스펙을 쓸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는 길이다. 입학사정관에 대비하는 비교교과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과과 성적 관리,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서류 준비와 심층면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나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는 특목고와 과학중점학교 수험생들에게 권한 만하다.

이영덕 소장은 “실질 반영비율은 수능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내신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 문화예술계 리더들 조선대 강단에 선다

진시영·김성희·박용준씨 등 ‘문화 초대석’ 강의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문화가 김성희, 박용준 인디고 편집장, 철학자 김병민, 시인 송경동 등 한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조선대학 강단에 선다.

이들은 조선대가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을 위해 2013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문화초대석’ 강의를 맡는다.

기초교양대학(학장 이종범)이 개설한 ‘문화초대석’ 책임교수 박선희(은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리더 가운데)는 “문화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도 한국의 저명한 문화예술 활동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대학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체계적이고 새로운 문화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강좌는 지난 5일 박선희 책임교수(사회과학대학장)의 ‘문화리더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19일에는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가 ‘경쟁에서 빛나고 살아가기: 새로운 지역공동체 민중의 집’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5월 14일에는 철학자 김영민씨가 ‘동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씨는 동지나 친구, 연인 관계를 넘어서는 ‘동무’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계를 오랫동안 궁리해 왔다. 이어 5월 28일에는 ‘거리의 시인’으로 불리는 송경동 시인이 ‘광장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5월 20일에는 철학자 김영민씨가 ‘동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씨는 동지나 친구, 연인 관계를 넘어서는 ‘동무’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계를 오랫동안 궁리해 왔다. 이어 5월 28일에는 ‘거리의 시인’으로 불리는 송경동 시인이 ‘광장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 2년 연속 선정

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은 전국 370여개 대학의 공모를 받아서 최종 43개 대학을 선정, 취업 전문컨설팅센터를 고용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처 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인력개발센터에 따르면 2012년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을 시작해 2명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개인상담 3137건, 참여자수 859명 등 높은 이용률을 올리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호남대 대학청년고용센터(062-940-5844~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여상은 이에 앞서 지난 1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광주여상 학생 18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여상 제공〉

## 광주여상 금융자격증 전성시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18명 합격… 증권·펀드 분야도 취득

광주여상이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금융관련 자격증을 대거 취득해 화제다.

광주여상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제17회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서 2학년 이지원양 등 18명이 합격했다.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학교족이 고급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육성사업자금’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질감

형 창의경쟁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교재비 및 수강료를 부담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다.

나정식 광주여상 교장은 “금융 회계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성과가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정책과 맞물려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여상은 이에 앞서 지난 1

월 20일에 실시된 제17회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서 51명, 2월 3일에 실시된 제13회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서 18명 등 금융분야 전문 자격증을 잇따라 따냈다.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학교족이 고급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육성사업자금’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질감

형 창의경쟁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교재비 및 수강료를 부담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다.

나정식 광주여상 교장은 “금융 회계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성과가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정책과 맞물려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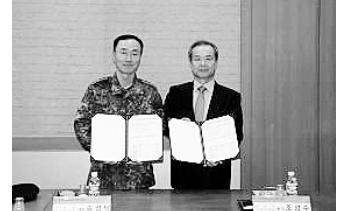
## 전남과학대, 학·군 학사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남과학대학교와 육군 제51군수지원단은 최근 학·군(學·軍) 제휴 제도발전을 위한 학·군 학사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남과학대 조성수 총장과 제51군수지원단장 송영덕 대령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학과 군축 심의위원회를 참석한 가운데 초기간부 양성의 주문식 교육에 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최된 학사관리심의위원회는 대학이 지난 2001·2002년 육군과 각각 기술부사관 양성의 MOU 체결로 특수장비과(전자·장갑차·자주포·전공) 및 특수통신과(군유·무선통신장비·전공)를 개설한 이래 협약지원부 대인 제51군수지원단과 교육과정·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매년

1년도 학·군 학사관리심의위원회 일시 : 2013. 3. 6(수) 장소 : 전남과학대학교 종합상설관 5층 511호



논의하는 협의기구이다.

올해로 열두 번째 개최된 학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MOU에 의거한 군 관련 전공과목의 교육과정 내 60% 이상 편성과 육군 필수소양과목(한국사, 군대윤리, 리더십) 교육, 대학 및 협약지원부 간 현장실습 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이종태)가 광주시 교육청과 손잡고 이달부터 지역 중고교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 직업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직업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교육기부 형태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개설 프로그램은 신기한 로봇세계체험, 신재생에너지 체험, 전자현미경을 통한 나노세계 탐구, 아이맥을 활용한 시각디자인 프로그램이다.

폴리텍 광주캠퍼스는 보유한 청소년 기자재 및 우수 교수진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특히 단순 특강, 견학, 관람이 아닌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실질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 동신대 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특화 교육

동신대학교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단장 허기택)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에 걸쳐 제1차 실감미디어 제작 전문인 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 제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

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번 콘텐츠 제작 교육에서는 실제 작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최근 영상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4K 영상 및 3D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한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 삼희공인중개사

### ■상가건물전문■

◆10억부터 50억 이상◆

급매물 본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취하 및 매입가능)

### ◆상속부동산/지분물건◆

(즉시 매입가능)

### 매 매

\* 두임동 두임터미니 153평) 건 2180(660평)  
대지 507제곱미터(153평) 건 2180(660평)  
6층주식(48평) 대출금(10억) 매매가(22억  
보4억3500만/월1390만/실투자금7억7천  
실수익률 연13.8%

### 임 대

\* 서구 청동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보3억/월2200만 건330제곱미터(100평)  
\* 서구 치평동 아마트 인근 4층 사무실  
보1억/월350만 건494.49제곱미터(170평)  
\* 북구 문등동 대로변 4층 건727제곱미터  
(350평) 보1억/월500만 매매가6억5천만

###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만한 인사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금당 공인중개사

###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lt;p